

가장 위대한 뇌

작성일 : 2010. 12. 7 (화) 새벽 3:20

작성자 : 정명심 목사 (대구 스타교회 부교역자)

[요즘 말씀을 통해 뇌에 대하여 너무 놀라운 발견을 하고 있다고 감격해 하며 말씀을 주신 주님과 말씀을 받아주신 선생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환상을 보았습니다.

교회 본당 앞쪽에 부흥강사님이 서 계셨고, 기도를 하는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굽은 어깨와 등을 교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봄과 동시에 깨달음이 오기를,

부흥강사님은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자세를 교정해주신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뇌가 교정되고 바로 잡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환상이 사라지고 “오늘은 ‘인간의 본체’에 대하여 말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계속 말씀 해주셨습니다.]

* 예수님 말씀 *

인간의 본체!

너희 인간들에게는 본체가 있다.

컴퓨터에도 본체가 있듯이

너희 인간에게도 본체가 있다.

바로 너희 뇌를 지칭한다.

뇌에는 온갖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은 개발하기에 달려있고, 아는 만큼 쓸 수 있다.

뇌는 가만 두면 썩는다.

항상 그 수준, 그 자리, 그 위치를 면할 수 없다.

뇌는 쓰는 만큼 더 잘되고 발달되게 되어 있다.

뇌도 근육이 잡히는 원리와 같다.

계속 쓸수록 발달되고 멋있게 형태가 잡히는 것이다.

내가 만든 뇌가 얼마나 오묘한지 쓰면 쓸수록 알게 되니

너희 각자는 느껴보아라.

창조주의 작품이다.

너희의 행동과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주관하고 다

스리니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느냐?

뇌의 잘됨과 같이 운명이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뇌를 개발하여라.

뇌에 대해 바로 알라.

뇌는 무한대야.

너희 뇌에는 지구와 우주의 모든 것을 입력해놓았다.

왜냐하면 지구에서 살 때에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주었고

육신 세계를 지나 영계, 나의 나라에 오기 위해 필요한

영적인 지식과 능력까지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나의 나라 천국에 오도록 뇌를 개발할 수가 있다.

그 뇌는 뇌를 창조한 창조주에게 쓰일 때

가장 고차원적으로 쓰일 수 있다.

인간이 아등바등 써보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

인간의 한계다.

천국을 위해, 나를 위해 쓰면

그 뇌를 실로 다 쓰고 가는 것이다.

육계에서만 쓰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

뇌는 가만 두면 굳어버리니 계속 운동하듯이 써야 한다.

너희 뇌에 자꾸 나의 말씀을 입력하여서

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너희 뇌는 컴퓨터 본체와 같아서 입력한 대로 실행시킨다.

나는 사랑의 본체이니 사랑만 실행시킨다.

너희의 본체에는 무엇을 입력시킬 것이냐?

오직 사랑, 나의 말씀, 믿음, 소망, 희망,

성령의 열매들을 입력시키라.

(“예수님, 선생님의 뇌는 어떠합니까?”)

이 세상 선생보다 빛난 뇌를 본 일이 없다.

자기 주관이 전혀 없고

오로지 나의 주관으로만 가득 찼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장 빛난 영이다.

자기 것을 비우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으로만 가득 찬 그 뇌가

가장 신비하고 웅장하고 위대한 뇌이다.
좌뇌, 우뇌, 전·후 모두 골고루 발달시킨 뇌이다.
왜냐하면 나는 앞·뒤, 좌·우 치우치지 아니하며
어긋남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지혜와 능력의 신이며,
상천하지 최고 전능의 존재자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머리로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요,
너희의 생각이 아무리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뇌(腦)
이다.
나의 사상을 받은 그가
어찌 자신들의 생각
혹은 남의 생각을 최고라 여기며 받아들여 사는 자
들과
같을 수 있겠느냐?
스케일부터가 다르다.
너희 선생처럼 너희도 뇌를
크고 웅장하게 써먹을 줄 알아야 한다.

뇌를 놀리지 말고 부지런히 쓰라.
나에 대해 배우는데 쓰고
천국에 대해 배우는데 쓰라.
내가 너희 뇌를 바라보고 있노라.
나를 위해 쓰고 있는지, 너를 위해 쓰고 있는지
매시간 점검하며 귀하고 가치 있게 쓰라.

뇌를 천국 가는 목적으로 성령으로 운동시키자.
그것이 '천국성령운동'이다.
너희 뇌가 운동해야 돼.
천국성령운동은 욕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영, 너희 뇌가 하는 것이다.
너희의 골수 즉 뇌에 불을/ 바다라.
뇌가 받은 대로 행하니
불을 받으면 뜨겁게 행할 것이 아니냐?
뇌에 불을 받도록 간구하라.
너희의 뇌를 너희 개인 각자를 위해 쓰지 말고
나를 위해, 천주를 위해 쓰이는 위대한 뇌가 되어
라.
너희 선생과 같이 후회도 미련도 없이 쓰여라.
사랑한다.

너희의 뇌를 창조한 나 예수가.

(이 계시를 보시고, 선생님께서 편지를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 선생님 말씀 *

선생 뇌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잘 전해서
그것이 뛰어난 뇌라고 평가한다.
주님 나 보고 천재라고 했다.
심정 알고 성경 잘 푼다고.
썬스탑, 노아 때 인간 나이 계산 법 등 수백 가지
알기에.
주님이 한 가지 가르쳐 주고 이와 같이 이리하다.
주님께 배워서 칭찬 받았다.
주님께 배워서 천재됐다.
주님은 신앙세계에서 주님 최고 잘 전해주는 것을
최고로 보신다.